

# 사법 과오의 기록

## 일본 · 대만 비교 심층 리포트

### 미국 이노센스 모델의 아시아 이식 — 그 성과와 한계

이원영 국토미래연구소장 · 시민인권위 공동위원장 + AI 동료들

《잘못된 판결 백서》 기획 관련 자료 (2026.06.19)

## 제서장 왜 일본과 대만인가

앞선 리포트에서 독일·프랑스·영국·미국의 사법 과오 청산 경험을 검토했다. 그 결론은 하나였다. 이해관계 없는 외부 주체가 기록할 때, 그 기록은 살아남는다. 미국의 이노센스 프로젝트와 국가 무죄선고 기록소(NRE)가 그 전범이었다.

그렇다면 한국과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들은 어떤가. 일본과 대만은 모두 미국 모델을 직접 참조해 유사 기구를 만들었다. 그러나 출발 조건이 달랐고 도달한 지점도 다르다. 두 나라의 경험은 한국의 《잘못된 판결 백서》 설계에 직접적인 시사를 준다.

이 리포트는 일본을 먼저, 대만을 나중에 다루고, 마지막으로 세 나라(미국·대만·일본)와 한국을 함께 비교한다.

## 제1장 일본 — 가장 늦게, 가장 어려운 토양에서

핵심 정보	일본의 사법 오판 기록과 구제 현황
핵심 기구	Innocence Project Japan (IPJ) — 2016년 설립
대표 사건	하카마다 이와오 사건 — 사형 확정 후 58년, 2024년 재심 무죄
핵심 장애	'인질 사법(人質司法)' — 기소 후 유죄율 99%, 허위 자백 구조
데이터베이스	없음 (NRE에 해당하는 공개 기록소 미존재)
재심 구조	검찰 즉시항고 허용 → 하카마다 사건: 재심 개시 결정~확정 9년 소요

### 1-1. 구조적 배경 — '인질 사법'이라는 벽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범죄율을 자랑하는 나라다. 그러나 이 '안전 신화'의 이면에는 형사사법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다. 일본 형사법원의 기소 후 유죄율은 99%를 넘는다. 이 수치는 일본 검찰이 확실한 사건만 기소한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일단 기소되면 무죄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 핵심에 '인질 사법(人質司法, hostage justice)'이 있다. 피의자를 구속 상태에서 장시간 신문하고, 보석 없이 억류하면서 자백을 받아내는 관행이다. 일본 형사사법은 자백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경찰과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다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왔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오판을 찾는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처럼 이노센스 기구, 탐사보도 언론, 학술 연구자, 독립적 재심사위원회가 체계적으로 오판을 찾아나서는 구조가 없으면, 오판은 드러나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으면 기록될 수 없고, 기록되지 않으면 개혁의 근거가 없다.

### 1-2. 하카마다 이와오 사건 — 58년의 기록

#### 사건의 경위

1966년 6월 30일 새벽, 시즈오카현 청수시의 된장 제조회사 전무 자택에서 일가 4명이 살해되고 주택이 방화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그 회사 직원이었던 하카마다 이와오가 같은 해 8월 체포되어 기소되었다.

하카마다는 공판에서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1년 2개월 후 된장 탱크 안에서 발견된 이른바 '5점의 의류' 등 증거를 근거로 1심은 유죄·사형을 선고했고, 항소와 상고도 기각되어 1980년 12월 사형이 확정됐다.

## 재심 개시까지의 지난한 과정

하카마다의 누나 하카마다 히데코는 40년 이상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2014년 3월 시즈오카 지방재판소가 재심 개시를 결정하고 하카마다를 석방했다. 그러나 검찰이 즉시항고를 했고, 도쿄 고등재판소는 재심 개시 결정을 취소했다. 최고재판소가 다시 고등재판소 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했고, 환송 후 도쿄 고등재판소가 2023년 3월 재심 개시를 인정해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재심 개시 결정이 나온 지 9년이 지나서야 재심 개시가 확정된 것이다.

## 2024년 재심 무죄 판결

2024년 9월 26일, 시즈오카 지방재판소는 재심에서 하카마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5점의 의류에 대해 '수사기관에 의한 날조'임을 인정했고, 하카마다의 자백에 대해서도 '목비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공술을 강제하는 비인도적 취조로 획득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날조된 것'이라고 단정했다. 사형 확정 사건의 재심 무죄는 전후 다섯 번째 사례로, 1989년 이래 35년 만이었다.

## 검찰의 반성 거부

더 충격적인 것은 무죄 판결 이후였다. 일본 검사총장은 상소권 포기 성명에서 '5점의 의류를 수사기관의 날조로 단정한 것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수사기관의 증거 날조라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어떠한 반성도 보이지 않은 것이다. 이는 프랑스의 2024년 파기원 명예 재판장 고백 — '비시 점령기에 사법부가 담당했던 역할에 대해 오랫동안 침묵이 지배했다' — 과 대조된다. 프랑스는 80년 만에라도 인정했으나, 일본 검찰은 판결이 내려진 당일 반성을 거부했다.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다. 1966년 하카마다를 기소한 검사들의 이름, 증거를 날조한 수사관들의 이름, 사형을 선고한 판사들의 이름은 어떤 공식 기록에도 남지 않았다.

## 1-3. Innocence Project Japan(IPJ) — 2016년 출범

하카마다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오판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2016년 4월 이노센스 프로젝트 재팬(IPJ)이 설립됐다. 고난대학 법학과 사사쿠라 가나 교수와 리쓰메이칸대학 공학과 이나바 미쓰유키 교수가 공동 대표를 맡고, 법학 교수, 과학자, 변호인 등 전문가들이 결집했다. 미국 이노센스 네트워크의 회원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IPJ는 DNA 감정 등을 통해 억울한 수감자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2024년까지 지원한 사건 중 무죄를 확정지은 것은 2건이다. 접수된 사건이 약 90건임을 감안하면 아직 초기 단계다.

미국 이노센스 프로젝트(1992년 창설, 250건 이상 무죄 확정)와 비교할 때 규모와 성과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는 IPJ의 역량 문제라기보다 일본의 구조적 조건 때문이다.

검찰이 수사 기록에 대한 통제권을 강하게 쥐고 있어 증거 접근 자체가 제한된다. 재심 신청에 대한 법원의 문턱도 높다.

#### 1-4. '인질 사법' 종식 법안 — IPJ의 제도 개혁 캠페인

IPJ 연구자들과 변호사들은 '인질 사법'을 종식시키기 위한 법률 초안을 개발했다. 핵심 내용은 세 가지다.

- 피의자 신문 전 과정의 영상 녹화 의무화
- 구속 중 변호인 접견권 보장 강화
- 보석 기준 완화 — 자백을 받기 위한 장기 구속 구조 차단

2023년 5월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일본의 '인질 사법' 문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표하며 국제적 압력도 가해지고 있다. 하카마다 사건 무죄 확정 이후 일본 변호사연합회(日弁連)도 재심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1-5. 일본 경험의 핵심 교훈

일본의 경험에서 두 가지 명제가 도출된다.

첫째, 오판을 찾는 기구가 없으면 오판은 보이지 않는다. 1945년 이후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재심 무죄가 된 것이 8명에 불과한 것은, 일본의 형사사법이 그만큼 정확해서가 아니라, 오판을 찾는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드러난 수는 실재하는 수의 빙산 일각이다.

둘째, 검찰이 기록을 통제하는 구조에서는 이해관계 없는 외부의 기록이 더욱 절실하다. 하카마다 사건에서 수십 년간 증거를 은폐한 것도 검찰이었고, 무죄 판결 후 반성을 거부한 것도 검찰이었다. 내부에서 기록할 의지가 없을 때, 시민과 학술 기관의 독립적 기록만이 역사를 만든다.

## 제2장 대만 — 더 일찍, 더 체계적으로

핵심 정보	대만의 사법 오판 기록과 구제 현황
핵심 기구	台灣冤獄平反協會 (Taiwan Innocence Project, TIP) — 2011~12년 설립
무죄 확정	14건 지원 성공 (2024 기준)
데이터베이스	台灣刑事再審無罪資料庫 — 공개 DB 운영

국제 연대	2015년 국제 이노센스 네트워크(Innocence Network) 가입
대표 사건	정심쩌 사형 무죄(2017), 쑤빙쿤 32년 만 무죄, 린진구이 무기징역 무죄(2023)

## 2-1. 설립 배경 — 미국 모델의 직접 이식

대만 冤獄平反協會(이하 TIP)는 2011년 대학 교수, 변호사, 의사, 종교인 등 전문가들이 발기해 2012년 정식 설립됐다. 왕자오핑 교수, 뤼빙청 변호사, 가오융청 변호사, 예젠팅 변호사가 공동 창설했다.

설립 취지에 미국 이노센스 프로젝트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대만 TIP는 미국 모델의 의식적 이식이다. 창설 문서에는 '뉴욕 카도조 법학대학원의 배리 섉과 피터 뉴펠드가 공동 설립한 이노센스 프로젝트의 성공 모델이 미국 각 주에 퍼져나간 것처럼, 대만에서도 오판 구제와 제도 개혁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TIP의 접근 방식도 미국 모델을 충실히 따랐다. 개별 사건 구제, 오판 원인 연구, 제도 개혁 캠페인의 세 축을 동시에 추진한다. 한 사람을 구제하면서 그 사건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그 분석을 근거로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 2-2. 주요 구제 사례 — 사형에서 32년 억울 수감까지

### 정심쩌 사건 — 사형수의 무죄 확정(2017)

TIP 구제 사례 중 가장 주목받은 것은 정심쩌 사건이다. 정씨는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TIP의 지원 아래 과학적 증거의 오류와 수사 절차의 위법성이 규명되어 2017년 무죄가 확정됐다. 대만에서 사형 선고 수용자가 재심 무죄를 받은 드문 사례였다.

### 쑤빙쿤 사건 — 32년 만의 평반

쑤빙쿤은 32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TIP가 지원에 나서 오판 원인을 규명했고, 마침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대만 사회에 억울한 수감의 실상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 린진구이 사건 — 무기징역에서 무죄(2023)

2023년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린진구이가 TIP의 지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현재까지 TIP가 지원에 성공한 사건은 총 14건에 달한다.

이 숫자를 미국(250건+), 일본(2건)과 비교하면 대만 TIP가 설립 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음을 알 수 있다.

## 2-3. 재심 무죄 데이터베이스 — 아시아의 선례

대만 TIP가 일본 IPJ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데이터베이스의 존재다. TIP는 '台灣刑事再審無罪資料庫(대만 형사 재심 무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공개 운영하고 있다. 미국 NRE를 직접 참조한 아시아 최초의 시도 중 하나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대만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사례들을 집대성한다. 사건명, 혐의 내용, 판결 내용, 오판 원인, 재심 청구 경위, 무죄 확정 연도 등이 공개된다. 누구나 검색하고 인용할 수 있는 공개 자료다.

데이터베이스의 존재는 단순한 기록의 집적이 아니다. '오판이 얼마나 자주,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그 분석이 제도 개혁의 근거가 된다. NRE의 창설자 새뮤얼 그로스 교수가 '기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한 것처럼, 대만의 데이터베이스도 같은 역할을 한다.

## 2-4. 제도 개혁 캠페인 — 교육·연구·입법의 세 축

TIP의 활동은 개별 사건 구제에 그치지 않는다.

- 전국 변호사협회와 협력하여 오판 방지 교육 훈련 실시
- 대학에 냉案 구제 실무 과목 개설 — 학생 자원봉사자 참여
- 매년 학술 심포지엄 개최 — 외국 오판 연구 소개·제도 개혁 촉진
- 2015년 국제 이노센스 네트워크 가입 — 각국 경험 교류
- 2023년 형사소송법 개정 참여 — 감정 증거의 투명성 강화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입법 참여다. TIP는 2023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감정 증거 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논리를 제공했다. 개정법은 감정 보고서에 감정인의 전문 능력, 감정의 기초 사실, 원리와 방법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오판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전문가 증언의 불투명성'을 차단하는 조치다.

## 2-5. 대만 경험의 핵심 교훈

대만의 경험이 한국에 주는 시사는 세 가지다.

**첫째,** 이노센스 기구와 데이터베이스는 동시에 만들어야 한다. 개별 사건 구제만으로는 구조적 개혁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TIP가 데이터베이스를 병행 운영하는 것은 이 교훈을 처음부터 내재화한 결과다.

**둘째,** 법학 기관과 시민사회의 협력이 신뢰의 원천이다. TIP의 집행진은 법학 교수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대학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다음 세대 활동가를 키운다. 이것이 조직의 지속성을 만든다.

**셋째,** 국제 연대가 국내 저항을 넘는 데 도움이 된다. TIP가 2015년 국제 이노센스 네트워크에 가입한 것은 단순한 정보 교류 이상의 의미가 있다. 국제 기준을 근거로 국내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외압 활용 전략이기도 하다.

## 제3장 미국·대만·일본 비교 — 그리고 한국

### 3-1. 다섯 나라 비교표

항목	미국	대만	일본	한국(현재)
이노센스 기구	1992년 이노센스 프로젝트	2011년 冤獄平反協會(TIP)	2016년 IPJ	없음 (설립 논의 단계)
무죄 확정 지원 건수	250건+ (DNA 포함)	14건 (2024 기준)	2건 (2024 기준)	해당 기구 없음
오판 데이터베이스	NRE 3,698건 공개 (2025 기준)	재심무죄 DB 운영 (TIP)	없음	없음
재심 구조	검찰 즉시항고 불가 (주에 따라 다름)	비교적 유연	검찰 즉시항고 가능 → 9년 지연 사례	검찰 즉시항고 가능
핵심 장애	인종 편향 잔존	사법 관행 개선 중	인질 사법 99% 유죄율	기록 기관 자체 부재
선도 사례	이노센스 NRE → 제도 개혁	정성찌 사형무죄 쑤빙쿤 32년 무죄	하카마다 58년 만 무죄 (2024)	인혁당 8인 조봉암 등 재심 (이름 미기록)

### 3-2. 공통 패턴 — 무엇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가

세 나라의 경험을 가로질러 두 가지 변수가 결과를 결정한다.

**변수 1 — 기록하는 주체의 독립성:** 미국 NRE는 대학 연구자들이 운영하며 정부 예산을 받지 않는다. 대만 TIP는 법학 교수와 변호사들이 설립했다. 이들은 검찰 예산으로 운영되지 않고, 법원 인사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본에서 기록이 취약한 것은 검찰이 수사 기록을 통제하고, 이해관계 없는 외부 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변수 2 — 재심 구조의 개방성:** 미국의 많은 주에서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없다. 대만은 재심 구조가 비교적 유연하다. 일본은 검찰의 즉시항고가 허용되어 하카마다 사건처럼 재심 개시 결정이 나도 9년이 걸렸다. 기록이 있어도 재심 문이 닫혀 있으면 기록은 무력하다.

### 3-3. 한국에 대한 시사 — 설계의 우선순위

한국에는 현재 이노센스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기구도, NRE나 TIP의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기록소도 없다. 그러나 한국은 이 두 나라보다 유리한 조건을 하나 갖고 있다. 이미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과거사위원회 결정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등 국가가 잘못을 인정한 기록이 공개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한국에서 《잘못된 판결 백서》의 1단계는 새로운 재심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국가의 공식 인정 기록을 집대성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인혁당 8인, 조봉암, 긴급조치 피해자들, 강기훈, 약촌오거리, 삼례 나라슈퍼 — 이 사건들의 재심 무죄는 이미 확정됐다. 그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이름도 이미 법원 기록에 있다. 기록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대만 TIP의 경험이 알려주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과 새로운 사건을 구제하는 일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험이 경고하는 것처럼, 검찰이 기록을 통제하는 구조에서는 이해관계 없는 외부의 기록이 더욱 절실하다.

## 제결장 기록이 먼저다 — 제도는 기억 위에서만 지속된다

일본은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찾는 사람이 없어서 재판이 드러나지 않았다. 대만은 찾는 사람들이 나섰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미국 모델을 이식할 수 있었다.

두 나라의 대비가 한국에 주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제도를 기다리지 말라. 기록이 먼저다. 법원이 기록하지 않으면 시민이 기록해야 하고, 검찰이 반성하지 않으면 역사가 기록해야 한다. 기억되지 않는 불의는 반복된다.

하카마다 이와오는 58년을 기다렸다. 조봉암은 2011년, 52년 만에 무죄를 돌려받았다. 인혁당 8인은 사형 집행 31년 만에 무죄가 됐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이름들은 이미 그곳에 있다.

이원영 국토미래연구소장 + AI 동료들

리포트 작성: 2026.06.19 | 시리즈 2편 (1편: 독일·프랑스·영국·미국)